Ⅰ. 서론

일반적으로 실천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예배론이나 목회방법론(조직, 행정)을 먼저 언급하지만 필자가 “설교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안에는 사실상 목회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육과 상담, 치유와 선교, 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사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설교의 형태는 많이 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간증과 서신을 읽는 것,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성경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메시야 되심에 대한 증거들을 보이는 설교(Kerygma 케리그마)를 했고, 더불어 회당과 같은 곳에서 교육을 통한 지식을 쌓는 일도 병행하였습니다(Didache 디다케). 이러한 방식은 전 세대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설교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시대라 일컬어지는 2 세기경에는 마치 서로서로 이야기 하듯이 하는 설교(Homilia 호밀리아)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는데, 성경 본문을 두고 주해하는 방식으로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거짓전도자나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했던 설교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세기에 오면서 오늘날의 설교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영어로는 preaching 의 유래가 된 프레디카치오(praedicatio)라는 단어가 설교를 대신하는 예배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공적으로 알린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회중설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설교는 더 이상 교회의 예배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1 년에 한 번 정도 행해질 정도가 되었으며, 자연히 성경을 강해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데 초점을 둔 “주제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오늘날 설교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인 "sermon'의 어원을 이루는 세르모(sermo)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맞으며 교회는 설교의 위치를 제자리에 옮겨놓았고, 이제는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공중예배에서 행해지는 설교(콘치오 contio)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출판문화의 번영과 더불어 많은 성경들이 보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강해설교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세시대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현대에 와서 이 설교의 형태가 또 다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휩쓸면서 설교는 성경을 떠나 사회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지나간 역사를 통해 설교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설교가 단순히 사람들의 눈속임을 위한 기교나 수단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1) 설교의 정의

일반적으로 설교라는 용어는 영어의 표기로 “Sermon”이나 “Preac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는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Sermon”은 보다 큰 의미에서의 설교를 말하고 “Preaching”은 보다 구체적인 설교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Sermon”은 라틴어의 “sermo”에서 나온 말로 담화나 연설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예배에 설교형식을 갖춘 연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말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rmon”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한다면 “Preaching”이라는 단어는 설교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말씀의 선포 또는 복음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praedico 에서 나온 말로서 선포하다, 찬미하다, 예언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설교라는 단어를 결론지어서 말한다면 공중예배나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단순히 성경공부를 하는 것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경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누군가를 이해시키거나 알게 하려는 것보다는 선포의 방식으로 듣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설교의 대상

설교자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해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당연히 듣는 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하기도 하지만 그 일로 실족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에 듣는 자들, 즉 회중들의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성경말씀 못지않게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 대해서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배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예배가 설교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설교의 형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가톨릭 예배의 형태를 따른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설교의 비중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간결하고 단순한 내용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초대교회의 설교 형식을 따른 교회들은 의식들은 최대한 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하는데 할애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의식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선포의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나 해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자들에게 자칫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설교자가 매우 권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반면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선포를 하게 된다면 회중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 지루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어떤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능력과 회중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설교자의 권위

설교의 대상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설교자가 듣는 회중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사역자 중심, 즉 설교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생각한다면 결국 설교자의 권위가 회중들의 신앙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권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회중들이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기능 이외에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앞에 자신을 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자신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하여 전혀 존경 받지 못하고, 또한 불량한 생활을 하면서 회중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한다면 아무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자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회중들을 향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가정에서 존경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회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면 이미 그는 자신이 입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결국 설교는 설교자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양심이 있는 설교자라면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듣는 회중들이 설교자 이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중들은 설교자가 말하는 그 이상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더욱 성숙한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속에서 권위가 나오고, 회중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을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중들로부터 엄청난 영적 권위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권위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거나, 능력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면서 회중들 위에 군림하기도 합니다. 회중들이 설교자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도 옳지 못한 자세이지만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려 하는 자세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들을 회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남용하여 회중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의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회중들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만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대부분을 전한 상태로 등단합니다. 그의 설교가 회중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②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우리는 회중들에게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를 고민하기에 앞서 설교를 하는 목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습관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윤리나 도덕적인 강의가 사람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철학을 담아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매우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설교는 듣는 이들에게는 매우 달콤한 것이겠지만 근본적인 설교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제아무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단순한 강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자도 실상은 여전히 죄 가운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회중들에게 자신의 생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한 회중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도달한 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라면 실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성도들은 그 믿음이 매우 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교리에 근거하여 바르게 선포하면 됩니다.

이 선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의 이곳 저곳을 찾아서 설교를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이러한 설교가 매우 듣기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혹은 매주 듣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칫 회중들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교리와 생활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유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듣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생활 현장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설교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많은 성경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과 문맥이 잘 맞아야 합니다. 만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회중들은 오히려 설교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론 많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설교가 성경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것도 설교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로 신앙을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③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설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듣는 이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내용을 회중들에게 전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설교는 풍부한 사회적인 지식들을 요구합니다. 근본주의적인 교리에 기초해서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회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면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2000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매우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설교는 회중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회중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전달만으로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그들은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이 원하는 것은 변화된 삶, 그리고 신실한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차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점차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리는 점차 실종되어가고 음란한 사회로의 진입은 그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섹스,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점차 부패된 삶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쾌락에 있으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2000 년 전에 기록된 것을 들려주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 순간 기적을 바라는 설교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당연히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타락된 문화가 성경에서 어떻게 조명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회중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왜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서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절제해 나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구체적이지 못하면 회중들의 삶도 당연히 우유부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교자들을 크게 좌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삶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일어설 때에는 매우 소망적인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회중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통해 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이 원하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회중들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대부분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회중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땀을 흘리고, 피곤한 삶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절망적인 이야기만을 들려주게 된다면 그들은 지쳐서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지친 회중들을 일으켜줄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까닭에 그들을 더욱 알아가고, 희망을 주며,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책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훈계하고, 훈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향한 애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설교자로서 회중들 앞에 섰을 때에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절망적인 말이 흘러나갈 때, 회중들은 절망하며, 내 입에서 소망의 소리가 나갈 때, 회중들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 설교의 분류

설교는 그 전하는 자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형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분류하여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분류를 하는 것은 회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함으로서 열매를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설교는 크게 주제설교, 강해설교, 주해설교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설교의 종류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본문설교,

제목설교, 간증설교, 계절설교, 심방설교, 부흥설교, 전도설교 등 설교하는 방법이나 장소, 그리고 특별한 회중들의 모임에 따라 설교의 종류들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은 설교의 준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서로가 자신들이 택한 설교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사)에 따라서 설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설교에 대한 평가는 회중들의 반응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의 방법으로 전했다 할지라도 회중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훌륭한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혀 상식 밖의 방법으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설교입니다.

가령 초기에 한국 교회는 주로 주제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초신자인 상태에서 그들에게 보다 자극적인 설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까닭에 한국교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서 점차 강해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안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듯이 설교하는, 즉 주해설교를 하는 교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들은 원어의 의미들과 현대 교회들이 오류에 빠진 원인들을 찾아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보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자들입니다.

설교는 결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왔느니라”고 외쳤던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처럼 매우 단순한 말씀의 선포도 훌륭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는 시대정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설교자가 가진 인격과 선물(은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설교의 형태들을 통하여 장단점을 알고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품위 있게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설교하는 방법은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① 주제설교

설교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교가 주제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보다는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설교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설교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결혼식이나 장례식, 개업이나 심방설교와 같은 경우에 강해설교나 주해설교를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설교의 특징은 설교자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 위에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방식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이나 교부들에 의하여 주로

사용되었던 방식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방식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하듯이 서론과 본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로 회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설교가 회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교자가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설교는 성경 전체를 인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회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회중들이나 설교자가 원하는 주제에 가장 근접하여 말하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이고도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교자나 회중이 매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주제설교는 가장 안전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설교에는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주제설교는 사실상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설교자의 인격에 따라서 설교의 형태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정적으로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회중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때때로 많은 회중들을 실족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을 억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자칫 교리의 변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회중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교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들은 때때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며, 심지어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제 설교가 가지는 최대의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설교는 대부분 설교자의 신념이나 의지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설교자가 이러한 모습들을 회중들에게 자주 노출하다 보면 설교자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중에는 회중들이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사람의 연설 정도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나 회중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들은 영적으로 그 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설교의 형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주제설교의 형태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가 이러한 몇 가지 주의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설교를 회중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진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의 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능한 설교자가 회중들을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한 강연이지 참된 설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제설교가 산만해지면 오히려 듣는 회중들이 집중력을 잃고 설교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제 이외의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기계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주제설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주제설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설교자의 환경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주제설교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언제나 성경을 살피고, 전하고자 하는 것이 회중들을 위한 것인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② 강해설교

강해설교의 기본은 일단 성경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본문으로 매듭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해설교 자체를 일방적 의미의 본문설교, 본문 제목설교, 본문 추론설교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의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제설교가 일정한 제목을 정해두고 그 위에 성경을 적용해 가는 방식이라면 강해(본문)설교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 그 위에 다양한 내용들을 입혀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교회 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와 회중의 사이를 가장 원만하게 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매주 다른 본문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특별한 성경본문(예를 들어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등)을 선정하여 순서대로 강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교회의 회중과 설교자의 환경에 맞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칫 교회의 환경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전하게 되면 실족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해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리한 분석과 의미를 전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적절한 예들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결코 무리한 적용은 피해야만 합니다.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힘을 쓰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강해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 문맥, 문법, 외국어나 번역본의 대조 등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대표적인 이단으로 활동했던 영지주의 사상으로부터 지금의 이단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의지해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강해를 하는 설교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자연히 성경 본문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뜻은 흐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본적인 교리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 설교자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회중들을 향해 설교를 했지만 막상 영적 침체를 겪거나, 실족하게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중들이 잘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만 실제로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앞세우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의 실패 뒤에는 설교자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해(본문)설교의 목적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적용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만일 준비가 없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지루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성경을 재미없는 하나의 우화거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교회의 회중들에게 가장 적절한 본문을 선택해서 적절한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③ 주해설교

주해설교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방식이지만 여전히 일부 모임에서는 주해설교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주해설교라는 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공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성경 주해를 통하여 회중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큰 의미에서 구분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주제설교나 강해설교에 약간의 주해 설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순수한 주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단어마다 가진 의미들과 요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줌으로써 특별한 논리나 주제를 정해두지 않고 그 의미만을 되새기게 함으로서 회중들 스스로가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이 설교는 회중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훌륭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올바른 본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번역본이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본문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바른 주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KJV(영어), 성구사전은 스트롱(영어)을 사용한다면 주해설교를 하는데 큰 문제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해설교의 장점이자 약점은 특정한 책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예수님의 비유, 기적들, 십계명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도 주해설교를 이어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교는 회중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자칫 시대 상황이 전혀 다른 현재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현대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성숙한 회중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 주해설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들이 축소될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성경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먼저 설교자가 충분한 지식과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며, 신앙이 어린 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유능한 설교자라면 비록 어린 신자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잘 준비가 되었다면 가장 권할 수 있는 설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방식은 무엇보다도 설교자가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교리에 기초할 필요가 있으며, 바른 성경과 사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로부터 존중 받을 수 있는 권위와 인격을 소유할 필요가 있으며, 듣는 회중들 역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야만 합니다. 만일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해설교는 분명히 훌륭한 방법이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4) 설교의 역사

설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설교의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변해온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적절한 설교의 방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변해 왔으며, 그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시대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말이나 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설교자들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교 그 자체를 학문으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있어서 방법을 이해하기 이전에 당시의 상황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 회중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중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설교의 다양함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방법,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상 설교의 방법이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은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가령 현대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설교방식이 강해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 설교 방식이 그 내용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회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오늘날과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이 잘 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의 방식을 오늘날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들은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과거에 행해졌던 설교를 이해하고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① 대언자들의 설교

어느 시대에나 설교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현 세대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를 고정관념의 틀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모든 시대마다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대언자들이 설교를 했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고, 오늘날과 같이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기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고, 대언자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하여 대신 전하는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자들을 예언자나 선지자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대언자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들의 설교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들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눅 24:44).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언자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령 아담과 이브에게 지어 입힌 가죽 옷이나 율법 시대의 성막과 그 기물들, 그리고 대언자들의 활동과 같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구약 시대일지라도 교회시대와 환난시대를 거쳐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심판 이후의 시대까지 이미 대언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결코 대언자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친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언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설교자로서 살아가야 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앞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대를 통해 있어 온 일들입니다. 회중들은 언제나 죄들과 더욱 친밀하고, 그 죄들에 대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대언자들의 사명입니다. 대언자들은 이러한 회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회중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설교를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서 회중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회중들을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했고, 대부분 참 대언자들은 회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 대언자들의 설교는 회중들에게 매우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대언자들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설교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참 설교자들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설교자인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야말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② 중간시대 때의 설교

중간시대라 함은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부터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는 보는 이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설교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이 시기를 중간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후 왕족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인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민족은 핍박과 혼란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비록 민족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들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고,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로 찾았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아 회당은 틀에 박힌 형식적 모임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예배 형식보다는 성경공부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회당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식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 때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듯 진행이 되지만

일정한 예배 순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회당장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배 인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당의 역할은 학교로서의 기능과 교인들의 모임,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다양한 모임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발전된 것은 오늘날의 성경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랍비들이 가르쳤던 탈무드와 같은 것들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율법을 보다 확대하여 풀어놓은 지침서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경을 회중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해설서와도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해설서들이 성경 못지않은 위치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간시대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식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며, 설교자들과 회중들 역시 비슷한 형식으로 모임에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회당은 모세, 즉 율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 설교자는 언제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고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 회당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설교자들과 회중들의 구성원이 다르며, 그 내용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이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③ 침례 요한의 설교

침례 요한의 설교는 오늘날 복음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광야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아닌 일반적인 회중들을 향한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한 설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목회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이들을 회개시키고 침례를 받도록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철저히 복음설교자들의 설교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하며, 자신은 단순히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회중들에게 성경을 강해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도덕적인 문제를 지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가르치는 의식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전을 떠나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오직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들은 당시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때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도 많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방식은 당시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왔고, 그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마 3:6). 그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복음전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인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설교자였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들 꿀을 먹었다는 이유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위대한 설교자의 자질일 것이라고 말합니다(마 3:4).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설교자로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마 3:11)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세는 언제나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설교자가 어떤 자세로 설교를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짓 전도자들은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교만해 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인기를 발판으로 회중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것은 설교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유혹입니다. 만일 신실한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안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겸손함으로 회중들을 대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④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모범적인 설교의 모델을 찾는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오히려 설교자가 가지는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설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동하셨던 모든 것들이 설교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회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권위를 가지신 상태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회중들은 이미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설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회중들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설교자라면 회중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설교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의 삶이 모범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앙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그분의 행적을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내용은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셨던 주제들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루셨고, 이 과정에서 책망과 죄를 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으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자로서 회중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었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설교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332 회에 걸쳐서 구약성경을 이용하셨고, 자신의 말이 결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인식시키셨습니다. 비록 그 해석이 당시 회중들에게는 매우 독창적이고, 때로는 신선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가령 비유를 들었을 때 회중들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그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가르치시려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현재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신약시대를 사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설교자이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⑤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 설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신 것들을 모방하여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봉사사역들은 모두 집사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행 6:4). 그들은 안정된 회중들을 향해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설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야만

했고, 설교의 내용은 짧은 시간 안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하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설교자를 꼽는다면 베드로와 스데반, 그리고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벧 1:12,행 28:31,고전 1:17). 그들은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르고 있었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가장 명쾌하게 증거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들과 자신이 범했던 죄의 모습을 상기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야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거하고자 힘썼던 설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성경을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야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열거하면서 보다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체험과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스데반은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완성은 바울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매우 풍부한 학문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서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져 있지만 그는 이 복음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주제는 언제나 복음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설교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들에 대하여 권하기를 내용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들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딤후 4:1,2)고 말합니다. 설교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들의 시대에는 복음을 알게 하는데 모든 중심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다양한 설교가 회중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⑥ 교부들의 설교

교부시대 설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매우 철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변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중들은 당연히 설교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예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저스틴 마터의 글에서는 ""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도들의 언행록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읽는다. 그 다음에 낭독자가 읽기를 멈추면 그 모임의 지도자가 말로써 가르치며, 이 선한 교훈들을 따라 살도록 권면한다. 그 다음에는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교부들의 설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변증학의 발달로 인하여 크게 안디옥과 알렉산드라아라는 두 개의 학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학파는 결국 기존의 교회 전통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집단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주로 철학적인 내용들로 설교를 이끌어 갔다면 터툴리안으로 대표되는 라틴 교부시대에 들어서는 철학과 신앙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철학적 사고로 신학 연구를 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일어났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단순한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철학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부시대를 대표하는 설교자를 한 사람 소개한다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토모스(chrysostomos)입니다. 그는 안디옥 학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 권의 성경들을 조직적으로 설교하였고, 문자적 해석을 하였으며, 회중들에게 적절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였고, 특히 죄 문제에 대하여 선포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설교자들에게는 매우 모범이 될 만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설교자들은 대부분 철학적인 설교를 바탕으로 하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화적으로 설명하는데 힘썼으며, 이러한 그들의 자세는 결국 로마 종교와 연합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부시대가 결코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학파를 중심으로 한 설교자들은 대부분 음지에서 활동을 하였고, 꾸준히 그리스도인의 수를 늘여가면서 자칫 사라질 수도 있는 진리를 보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교부시대의 이러한 양상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진리를 보전하려는 근본주의 교회들과 철학적인 사고로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교부시대에도 알렉산드리아의 학파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듯이 오늘날에도 신복음주의자들은 대중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의 시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진리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⑦ 중세시대의 설교

오늘날과 같은 설교는 중세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대중들에게 설교하면서 새로운 설교 방법들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성경을 낭독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지만 중세시대부터는 회중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설교방법들을 확대시켜 갔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가톨릭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설교의 역사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매우 혁명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프란시스(Francis, 1182- 1226)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그것은 쓸모 없는 일이다"라고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도미니크(dominic 1170-1221)도 역시 "그리스도는 오직 한번 미사를 드리셨다....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와 설교, 특별히 설교를 강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가톨릭과 관련된 또 한 사람인 베르나르디노(St, Bernardino of Siena 1380-1444)는 "미사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둘 중에서 여러분이 한가지 밖에 할 수 없다면 설교보다는 차라리 미사를 포기하도록 하라. 설교를 듣지 않는 것보다 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덜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설교가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수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설교자라고 한다면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30~1384)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지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다....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때문에 가장 존경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직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봉사다"라고 소개하면서 스스로가 회중들에게 친히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개혁자를 소개한다면 에라스무스(Erasmus, 1469~1536)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성직자의 가장 큰 기능은 가르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교육하고 훈계하며 꾸짖고 위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례전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설교는 더욱 발전되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하여 친히 말씀 하시던 시기를 지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하거나 전달하는데 힘썼고, 후에는 그 말씀을 읽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중들은 이처럼 단순한 설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중세시대 이후로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현대 설교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심지어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하면서까지 회중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회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설교의 방법을 제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보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설교의 본래 취지들을 퇴색시키고 오히려 회중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설득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서 후대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실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세시대 설교 역사의 한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개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결과들과 업적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⑧ 종교개혁자들의 설교

종교 개혁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쯔윙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의 깃발을 세운 사람으로, 또는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해 놓은 신학자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후대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하여 이처럼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매우 뛰어난 설교자들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종교 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종교 개혁과 더불어 로마 가톨릭에 의해 깊은 관습이 되어버린 상징과 미사 중심의 예배를 설교 중심의 교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없어도 그 영혼은 살아 갈수 있다....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기르며, 그 영혼을 의롭게 하고 자유케하며,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교가 극도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설교의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설교해야 하며 몸과 생명과 부와 명예를 말씀에 다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입니다.
루터가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다면 칼빈은 설교의 방법들을 매우 이상적으로 보여주었던 자입니다. 물론 그가 교리적으로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자세만으로 볼 때 그의 삶의 방식과는 관계없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힘썼고, 일반적으로 학자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민중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예배의 중심을 설교에 두고, 가정, 경제, 정치 등 모든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주제로 설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쯔윙글리와 같은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의 시대를 반영하듯이 교회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이거나 회중들에게 성경을 이용하여 계몽적인 설교를 함으로서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주교이자 설교자였던 유레미터(Hugh Latimer)는 이 시대의 설교의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설교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사단이다.....그는 결코 그의 직무를 이탈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그는 그의 일에 전념한다. 사탄이 일하는 곳에는 성경이 치워지며 촛불들과 염주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빛들이 사라진다. 설교하지 않는 고위 성직자들이여, 사탄에게 가서 부지런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 만일 당신들이 당신들의 직무에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께서 혹은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으려면 사탄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종교 개혁 시대의 설교자들은 뛰어난 언변과 훌륭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기술과 교리들은 이전 세대, 즉 중세 시대의 매우 뛰어난 설교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회중들에게 더욱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복음의 변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 시대의 역사는 후대에 위대한 설교자들을 낳기도 하였고, 또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⑨ 청교도들의 설교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설교자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청교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들은 설교를 위해 매우 헌신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심정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정신은 16 세기 후반과 17 세기로부터 시작하여 20 세기에 이르기까지 설교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17 세기 청교도를 대표하는 리챠드 박스터(Richard Baxter)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청교도였던 커튼 마더(cotton Mather)는 "설교자의 직무에 대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설교는 설교자에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다. 설교자의 직무는 이처럼 명예롭고 중요하며 유용한 직무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설교가 얼마나 고귀한 직무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회와 교회 마당, 마을 잔디밭, 그리고 들과 야외극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던 요한 웨슬레는 나는 설교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설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돌아다니며 38 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20 번 이상씩 설교를 하였던 죠지 화이트 필드(george Whitefield)는 설교의 권위에 대하여 강조하기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챨스 시므온(charles Simeon)도 동일한 입장에서 "그가 성경에 근거한 것을 설교한다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받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설교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더는 설교자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개혁자들은 위대한 설교자들이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감히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흥하거나 설교와 함께 망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도날드 코건(Donald Coggan)은 설교자의 위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비와 인간의 필요 사이에 서 있는 자가 곧 설교자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질문 사이에 서있는 자가 바로 설교자이다"라고 말합니다.

20 세기의 마지막 청교도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내게 있어서 설교의 사역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었다...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것은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흥분시키며 가장 보람되고 가장 놀라운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설교자들은 설교자가 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도 설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였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설교자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결국 훌륭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은 더욱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청교도 시대 설교자들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⑩ 현대 설교학의 경향

19 세기에 들어 설교가 하나의 학문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설교가 학문으로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슐라이에르마허 이후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렇게 설교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신학과 설교학을 하나로 묶어지면서 신학적 입장에 따라 설교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설교학들은 하나님 말씀에의 봉사 혹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서의 설교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현실적이면서 성령론적으로 이해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기초한 복음 혹은 교리에 대한 설명과 동일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설교학과 실제 실행 사이의 상호영향이라는 문제는 대략 1830 년이 지나면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의 설교학은 한편으로 그 당시의 유명한 몇몇 설교자들의 설교로부터 동기를 부여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이론들이 설교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대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설교는 획일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계층에 따라 그들의 설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성경을 강해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로 회중들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했지만 설교는 이미 설교자의 선포가 권위를 갖기 보다는 회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형태는 결국 설교자 중심이었던 교회 예배의 형태마저 점차 변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교제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어 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최근에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대한 설교자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위대한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이전 시대의 설교자들을 본받아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근본적인 신앙 위에 전통적 방식을 따라 설교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시시각각 변하는 문화적 환경은 전통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견뎌내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린 예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설교자의 권위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음악과 워쉽 댄스와 같은 다양한 문화가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설교는 회중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신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더 이상 설교 중심의 예배를 지향해 왔던 근본주의 교회들은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설교는 회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설교의 비중이 적은 만큼 짧은 시간 안에 회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보다 자극적이고, 회중들의 감성을 움직일만한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 세기 후반에 들어서 현대 설교에서는 유머를 비롯하여 사회적 이슈,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회중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모든 설교자들이 이러한 설교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소수이지만 근본주의적 전통을 따라 설교 중심의 예배를 계속하고, 철저히 강해설교를 통하여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며,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교하는 위대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설교의 큰 흐름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해 온 설교자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 설교의 준비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설교에 대한 중요성과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작성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세들과 강단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회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통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강조해 왔듯이 이곳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정답일 수는 없으며, 각자 가진 은사와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준비가 없는 설교는 회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여 설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성경의 원리들을 벗어난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미 많은 것들로 준비된 설교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주제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회중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주제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면 강해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설교하게 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시간까지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해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하는 일들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렇듯 설교 준비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보다는 설교자의 특성이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적용에 있어서도 교회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설교를 마친 후 반드시 초청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래된 교회이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중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라면 오히려 초청의 시간보다는 헌신의 시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내용의 중심이 초신자에게 맞춰질 수도 있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회중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으로 통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회중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회중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회중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자의 관심은 오직 회중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설교를 작성하고 강단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성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의 이해에 앞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술에 의지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① 회중들을 살피라

강해설교나 주해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본문이 정해진 상태에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을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제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현재 환경에 맞는 가장 적절한 내용을 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것이고, 어떤 내용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설교자는 주제를 정하기 위해 당연히 회중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회중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내용의 설교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수시로 상황들을 정리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달해야 할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회중들이 처한 환경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중들은 설교에 대하여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교의 내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설교가 자신들의 삶과 무관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간섭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설교자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병을 낳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합니다. 회중들이 그들을 더욱 선호하는 것은 그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화려한 설교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교가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회중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환경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설교자는 회중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유머를 통해서 회중들을 재미있게 한다든지, 모르는 것들을 가르침으로서 지식을 더하게 만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회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설교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자는 회중들의 마음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아는 과정이 필요하며, 순간순간 변하는 환경을 수시로 점검해서 설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② 기도하며 준비하라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회중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들을 언제나 기억나게 해 줄 것이며,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설교는 세상 사람들이 계몽을 위해서 회중들을 설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회중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도는 설교자가 진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도를 하게 된다면 설교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것이며, 그것은 진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간혹 설교자가 진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주변 이야기나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그날의 설교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는 틀림없이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설교의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듣는 회중들에게도 확신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라면 자신의 기도 목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주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메모를 해두거나 자신의 작업 공간 곳곳에 그 내용을 써서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듣는 회중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설교가 듣는 회중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설교를 통하여 영접과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설교를 듣는 회중 가운데 불신자들이 많아서 초청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경우는 더욱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설교자는 초청 시간에 대하여 상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순간을 위해 자신이 준비해야 하는 것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가끔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에도 크게 감동하여 회개하거나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말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목격합니다. 물론 설교에는 많은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바울은 각 지역교회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그의 말은 능력 있다는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고후 10:10,11:6).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그의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설교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는 있어서, 회중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③ 내용을 기록하라

설교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요약만 대충 정리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말할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권한다면 당연히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단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설교의 주제가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설교 내용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약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전체 내용을 작성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전체적인 요약 없이 계속 써내려 가는데, 이는 자칫 주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권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여 정리할 때 지나치게 규격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할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두고 그 내용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작성해 간다면 기대 이상의 훌륭한 설교 내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개관만으로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무디와 같은 복음전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개관만을 정리하여 설교했던 설교자로 매우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전도자로서 순간순간 바뀌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순발력이 요구되었고, 개관만으로도 훌륭한 설교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같이 일정한 시간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설교한다면 개관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의 내용을 잘 준비하여 설교한다면 더욱 여유롭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강해설교를 하게 된다면 성경구절 자체만으로 충분히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잡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관이 복잡해지면 자연히 주제가 흔들리고, 내용도 매우 난잡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할 내용이 단순한 것이라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더욱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내용을 구성해가는데 일정한 법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서론과 약 3~5 의 본론,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굳이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본론의 내용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이 주제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작성한 상태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중요하거나 반드시 전하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는 굵은 글자로 강조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내용을 마냥 읽을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그대로 읽었을 경우라도 중요한 내용을 회중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나중에 참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서로 남겨서 회중들에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글 쓰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④ 예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설교하는데 있어서 예화는 설교 전체의 내용을 각인시키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로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며, 때로는 설교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화가 필요한 이유는 청중들의 주의를 끌거나 다양한 청중들을 설교 안으로 흡수하는데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아니어도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예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먼저 설교할 주제가 예화를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예화 사용이나, 본문과 관계없는 예화는 자칫 청중들을 식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화를 잘 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설교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회중들로부터 주의를 끌지 못하는 예화는 오히려 지루하게 만듭니다. 설교자의 일차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중들을 변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예화는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병렬식으로 예화를 드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만을 가르치게 된다면 회중들은 결코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화를 잘 못 들게 되면 회중들은 혹시 그것이 자신을 겨냥하여 설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화들은 성경 밖의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중들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화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들은 설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만일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서 말하려 한다거나 상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치 실제 있는 사건인

것처럼 꾸며서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인 것을 쉽게 눈치 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화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설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만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 특별한 예화를 준비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큰 역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예화가 과연 회중들에게 적절한 것인가? 또는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설교의 효과를 높여줄 것이 분명하지만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⑤ 서론을 작성하라

설교에 있어서 도입부는 회중들에게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서론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론은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집을 짓는데 있어서 기초를 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 전체가 위험하듯이 잘 못된 서론은 설교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서론은 설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 자체가 되거나 전체 주제를 요약한 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자체보다 호화롭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면 시합에서 힘을 낼 수 없을 것이고, 너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적당한 서론의 진행은 설교의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론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포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중들에게 설교자 자신이 그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중들은 설교자가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을 하거나, 지나치게 권위 있는 자세로 회중들을 압도하려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의 일차적인 목적이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돋우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가 회중들에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론에 신경을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설교자 자신이 내용을 전개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정상적인 도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 혼란스러워서 주의력을 잃고 산만해 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설교가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면 설교자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입은 회중들에게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회중들로부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설교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서론은 간단명료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설교자들을 통해 서론이 설교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목격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회중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론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것은 설교자들의 실수를 줄여줄 것이고, 전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훌륭하게 전달시켜 주도록 도울 것입니다.

⑥ 긴장을 유지하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긴장감은 설교를 진행하는 중에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설교자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마음 자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듣는 중에도 긴장감이 없거나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곧 지루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것은 곧 설교자의 의도가 전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설교자는 준비 과정에서 회중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줄만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긴장감을 주어 설교에 힘을 더해 줍니다. 만일 설교자가 뻔히 아는 내용들로 회중들에게 설교한다면 청중들은 긴장감을 상실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나 회중 모두가 힘겨운 시간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그날 전할 내용을 미리 알게 하거나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중들은 설교자들의 생각보다 자극적인 설교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자극적인 설교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회중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논쟁이 될 만한 주제로 회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설교를 시도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을 갖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유머와 재치, 그리고 대조나 비교들을 통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공감을 느끼도록 하고, 설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에 대하여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각종 그림파일을 사용한다거나, 소품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은 설교에 대한 긴장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고, 적당한 시간에 사용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날 설교의 결론이 미리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혹은 스포츠를 관람할 때 결론이나 결과를 미리 알게 되면 극적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미리 그날 설교의 결론을 미리 공개하게 된다면 설교하는 동안 긴장감은 매우 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설교는 마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작품의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긴장감 있게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느냐는 것에 따라 평가됩니다. 작품이 평이하다면 그것은 지루하게 여겨질 것이고, 지나치게 극적이라면 사람들은 마치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좋은 작품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얼마나 동감하고,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라고 하는 것도 회중들이 얼마나 그 내용에 동감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함께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더욱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⑦ 설교자와 언어

설교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가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언어습관은 회중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설교자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은 설교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할 내용들을 할 수만 있다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철자법을 바르게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설교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었을 때 철자법을 잘 못 사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잘못된 철자법으로 인해서 설교 내용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바르게 알고 익히는 것도 설교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방법은 많은 음악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비단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설교자는 독서를 통하여 새로운 어휘들을 배워가고 그 속에서 회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적절한 어휘들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은 결코 회중들이 듣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독서는 회중들이 듣기에 편한 언어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언어와 관련하여 설교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설교를 기록하는 습관은 설교를 매우 논리 있고, 질서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회중들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쓰는 훈련은 짧은 기간에 완성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하여 좋은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되도록 경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회중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나 회중 모두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에 부적절한 언어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책망을 할 때

회중들이 듣기에 거북한 단어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욕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경건한 언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언어는 곧 인격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설교의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권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큼 언어, 혹은 단어 한자 한자는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사용할 언어들이 과연 적합한지를 먼저 기록하고 검토하여 적절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⑧설교자의 음성 관리와 사용법

은사주의 운동이 한창 퍼져나갈 때에 설교자는 쉰 목소리가 마치 능력 있는 설교자의 목소리로 간주된 적이 있었습니다. 회중들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들의 독특한 목소리에 압도되어 은혜를 구했고, 설교자들은 마치 광대가 되어 흥분된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일부러 목을 상하게 하였고,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인 줄로 착각하며 강단에서 그들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현대인들에게 설교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맑은 목소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를 정상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음향기기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설교자의 목소리에 따라 조절기나 믹서로 회중들에게 듣기 좋은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서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가 빠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잠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 둘 것은 설교자가 천천히 말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듣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걸이며,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단어를 분명하게 발음할 필요가 있으며, 흥분하여 듣기에 거북한 음성을 회중들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음향기기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므로 어차피 사용할 것이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설교 전에 회중들이 듣기에 가장 좋은 음성으로 잘 맞추어 놓고, 할 수만 있다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향 기기에서 저음보다는 고음을 많이 쓰는 것이 좋으며, 마이크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앰프를 통해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 녹음한 것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시로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노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를 통하여 호흡 하는 것을 익힐 수 있으며, 설교에 리듬을 익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록 설교를 하지 않는 날이라도 목소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추운 날에는 언제나 목이 차갑지 않도록 감싸고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는 설교자의 첫인상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 목소리가 회중들에게 맑은 목소리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집중하고 설교 시간 내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결국 말로서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성을 관리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목소리가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설교 전에라도 살펴보고 자신의 목소리가 충분히 역량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온 힘을 다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기계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⑨ 설교하기 전에 주의 할 것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집중력을 잃게 된다면 정상적인 설교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설교하기 직전에는 그날 설교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교회의 문제들이나,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가질 수 없다면 최소한 성도들과의 진지한 대화는 피해야 합니다.

간혹 설교자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설교하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분 아니라 온 회중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날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만일 특정한 개인이 실족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지극히 대중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설교자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면 매우 나쁜 결과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설교자는 그날 전해질 내용들이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될 수 있으면 예화를 드는 것도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날 설교할 내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하며, 만일 섭취하더라도 과일 음료나 야채와 같은 위장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할 수만 있다면 절제하고 목이 자주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는 정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 서기에 앞서서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회중들은 내용보다는 설교자의 몸 상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으며, 손과 발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해 준다면 건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자는 예배당의 온도와 습도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사방을 막고 난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치명적인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난방 열기와 건조한

실내공기는 설교자의 집중력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냉방으로 인하여 설교에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준비들은 설교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준비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설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민합니다. 설교자의 작은 준비가 회중들에게는 놀라운 결과를 안겨다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⑩ 설교할 강단을 확인하라

설교자는 자신이 서서 설교하게 될 공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올라가는 공간이더라도 미리 점검해 두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설교자와 회중들 사이의 거리나, 조명, 실내 온도, 강단의 높이와 공간, 그리고 예배당의 형태를 미리 익혀두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설교를 진행하는데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강단에서 몸의 움직임을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목소리로만 전달해야 할 것인지, 설교의 원고를 어느 위치에 둘 것인지와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어디로 둘 것인 지와 강단에 들어갈 때와 내려 올 때의 동선을 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록 중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때로는 설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효과적인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단을 확인함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회중들의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듣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설교자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자는 회중의 숫자에 관계없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중들이 많다면 더 많이 긴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설교자가 미리 강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청중의 규모를 미리 기억해 두고 자신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회중들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구분하고, 학력의 수준을 감안하고, 지역적인 특성들을 감안하여 자신이 준비한 설교가 전달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반응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일방적으로 회중들에게 통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설교는 회중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만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설교자가 강단에 서게 된다면 그 순간 회중들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서로가 대화를 하듯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까닭에 설교자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 표정은 어떠한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단정한 것인지, 강단 위에서의 행동이 회중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의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설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설교자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강단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언제나 살펴보고 회중들이 오직 자신의 설교할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6) 설교의 방법과 자세

설교의 방법이라는 주제 자체가 설교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서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설교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경험을 얻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의 방법을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자세를 논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나 전달력에 있어서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이 감동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설교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중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설교의 방법을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아래와 같이 회중들과의 관계설정이 중심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감대를 형성하라.
② 청중의 수준을 뛰어 넘으라.
③ 들리게 말하라.
④ 주입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라.
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라.
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라.
⑦ 주의력을 잡으라.
⑧ 초청을 하라.

이곳에서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설교의 자세에 가까운 내용을 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가령 발성에 있어서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든지, 주의력을 잡는 방법과 같은 것은 마음의 자세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 때마다 설교자는 순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설교는 설교자가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방법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방법에 치우쳐서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회중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데 있습니다. 설교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다양한 설교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곡식과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설교의 방법들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언제나 마음 속에 목적을 담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공감대를 형성하라

가끔 음악회를 가면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주자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사실상 청중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청중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 위주로 연주되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음악은 철저히 청중들의 기준에 맞춰져서 그들의 기호에 맞게 연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악을 대중가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록 음악적인 질은 떨어지지만 청중들의 정서에는 오히려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깊이는 있지만 여전히 회중들에게는 어려운 내용들을 전하려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회중들은 설교를 듣는 중에 자신들이 느끼며,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들려질 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의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의 청중들에게 대중음악은 천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고급스러운 음악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자들에게 초보적인 진리를 말하려 한다면 그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설교가 좋은 것도 아니며, 물론 쉬운 설교라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중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교가 가장 이상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입식으로 회중들에게 강요하거나, 흑백논리로 회중들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결과를 듣기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결론을 맺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명하게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회중들은 공감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는 회중들이 동의할만한 상식적인 것일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설교자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억지스러운 내용을 말하게 된다면 회중들은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듣는 회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게 될 때에 공감대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공통으로 가진 문제점들을 주제로 내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가기 위해 설교를 진행해 간다면 설교자와 회중들은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중들을 꾸짖는다거나, 기분이 나쁠 만한 말들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회중들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자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지나치게 자랑을 하게 된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설교자가 회중들과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회중의 수준을 뛰어 넘으라

회중의 수준을 뛰어 넘으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내용에서 그들의 기대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설교를 했다고 훌륭한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의 전개가 매우 매끄럽고 좋은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좋은 설교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영향력이 있는 설교의 특징은 듣는 회중들에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중들은 설교를 듣는 도중 뻔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더 이상 설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중에게 책임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게 되더라도 회중들은 결코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지루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진부한 표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특히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회중들의 상식수준을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설교들에 대하여 자신이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먼저 점검하고 말하게 된다면 분명히 회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설교를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평범한 내용을 독특하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몇 가지 주제만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회중들은 곧 식상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진리들에 대하여 마치 편식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진리가 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제를 바꾸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각 내용마다 독특한 매력들을 잘 살려서 같은 주제라도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중들은 설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다 쉽게 더 깊은 진리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이 편식을 하게 될 때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먹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편식을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강제적으로 먹이려고 합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먹일 때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설교를 들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혹은 매일 하는 설교라도 회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매우 효과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은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회중들의 기대치를 넘어섰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가 마치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대하는 것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자의 설교는 외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맛없는 음식을 먹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중들에게 있어서 설교자는 그들의 기대치를 뛰어 넘는 맛있는 설교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들리게 말하라

들리게 말하라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지만 정작 회중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을 목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오래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듣는 회중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교학이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설교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느냐를 질문했을 때, 대부분 20~30 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회중들에게 대략 20~30 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을 맞고 절반은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의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전도자는 에베소 교회에서 밤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하면서도 회중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회중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회중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려면 주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중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전에 자신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설교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교 듣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회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매우 단순한 용어와 선명한 내용들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깊이 없이 단순한 내용만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회중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 껍데기만을 품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 나쁜 결과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쉽게 설교를 진행하지만 내용의 깊이는 설교자들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들에게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주제에 단순한 용어, 그리고 내용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교자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회중들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까지 더한다면 그들은 매우 힘들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강조되어지는 것이지만 회중들의 눈높이에 설교의 수준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설교에 스스로 취해서 회중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달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응도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하면 듣는 사람이 매우 짜증이 나는 것처럼 설교자가 관심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면 회중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듯이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주입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라

많은 설교자들은 회중들을 마치 빈 그릇이라고 착각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빈 그릇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속을 가득 채우고 설교자 앞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주어도 그들은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릇을 완전히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설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자신이 전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중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회중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 밭이 나쁘다거나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신이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자 않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들을 설교의 내용 안으로 들어 올 수 잇도록 설득해야만 합니다.

회중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하여 듣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의 내용이 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명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설교가 선포라는 기능만을 생각하고 마치 독백하듯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회중들을 탓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소득 없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한다면 설명 위주의 설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회중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해준다면 회중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야 하는 것은 당위성만을 내세우고 마치 강요하듯 회중들에게 설교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회중들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공감대가 형성되어 설교를 듣고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한 것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설교를 통하여 얻게 될 유익함에 대하여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강요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회중들이 의무감이나, 혹은 기대감으로 설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자신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일방적인 강요나 주입식의 설교는 역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회중들을 설득하듯이 설교하는 지혜로운 설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설교는 일반적인 강연이나 연설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들로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그것은 일반적인 강연이나 연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설교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그를 소개하면서 그가 겸손했다는 사실과 진실함, 그리고 꿈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설교를 끝냈을 때 회중들은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훌륭한 설교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건강한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은 골리앗과의 싸움과 기도생활, 그리고 사울을 보호하고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며, 왕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을 주제로 흥미로운 설교를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좋은 설교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의로울 때나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특정한 인물이나,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설교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회중들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회중들보다 더 많은 묵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이 매우 경건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회중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묵상의 순간들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만 훌륭한 연설가 정도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세대의 설교자들이 점차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나 TV 앞에 자신의 시간과 생각들을 맡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머리 속에서 지워갑니다. 그것은 결국 설교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동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설교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영적 양식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설교자의 일차적인 목적은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라

설교자의 입에서 말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회중들은 그날의 설교를 절반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쓴 뿌리를 품고 말하고 있는지, 설교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회중들은 직감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설교자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 즉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평상시 언어의 습관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그에 걸 맞는 인격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설교자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그 인격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끊임없는 묵상과 기도생활, 그리고 경건한 생활의 습관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하는 방법을 묻지만 어찌 보면 그 비결은 이 한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 즉 회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려는 설교자는 이미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술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설교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따뜻한 언어의 사용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설교자는 회중들을 사랑하지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물론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언어의 사용은 생각하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가르치지도 않은 욕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나무라고 다시는 하지 말도록 훈계하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언어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불량한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연히 불량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신사적인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설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설교자 아래서 설교를 듣고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내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언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설교자는 특히 언어에 매우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주변에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설교자로서 언어의 습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에 따뜻한 언어를 구사한다면 회중들은 자신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⑦ 주의력을 잡으라

설교자가 설교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오직 그날 전할 진리들에 대해서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설교자라면 설교하기 전에 지나친 업무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목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설교하기 전에는 회중들과 접촉하는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면 설교하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설교 전에 업무나, 예민한 상담을 함으로서 그날 준비된 설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묵상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깊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자는 오직 그날 설교하기 위해 준비한 진리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회중들에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말한다면 설교하기 전에 찬송 인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자제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도 역시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은 미리 차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복장에 있어서도 미리 점검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신경이 쓰일만한 요인들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회중들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생각하며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특정한 개인을 의식해서 설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단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자는 오직 회중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설교자가 유혹을 느끼는 것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설교자라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주의력은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집중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설교자들은 단순히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경솔하거나, 무심코 던진 말들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칫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명 얻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생명을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초청을 하라

초청은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설교의 내용으로의 초청과 설교를 마친 후, 구원과 헌신에의 초청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초청은 설교자가 그날의 설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쳤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초청을 형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떠한 형태이든지 초청은 필요합니다.

그날 진행될 설교에 초청하는 것은 예배의 진행과 함께 시작됩니다. 가령 찬송을 하고, 광고와 방문자들을 소개하고, 헌금을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초청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설교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지혜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설교로의 초청을 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고, 회중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된다면 설교의 진행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령 찬송 인도자가 짧은 설교들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든지, 광고를 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회중들에게 알리게 되면 회중들은 설교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은 설교에 초청하기 위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만들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회중들을 초청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근본주의 교회들은 구원초청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초청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회중들이 생겨야 하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새로운 사람보다는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 초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설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설교자는 이미 거듭난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구원설교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설교의 방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덧 구원초청은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든지 설교를 하고 난 후 초청은 필요합니다. 그날 전해진 설교의 내용을 듣고 회중들의 반응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원초청을 하기 어렵겠지만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표현하거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회중들로 하여금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초청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교회도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입니다. 이미 음악이 예배를 주도하고, 회중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예배를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회중들로 하여금 더욱 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설교의 평가

I. 설교의 구조
1. 도입
① 회중들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는가?
② 회중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를 제시했는가?
③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2. 설교의 진행
① 설교의 진행이 명확한가?
② 설교가 진행될수록 발전이 있는가?
③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는가?
④ 내용의 전환이 자연스러운가?
3. 결론
① 설교가 진행될수록 절정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가?
② 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잘 요약했는가?
③ 촉구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II. 설교 내용
1. 본문내용 분석
① 설교가 확실한 성경해석에 기초하고 있는가?
②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분석이 철저하고 논리적인가?
③ 복음적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④ 본문내용의 배경 설명이 잘 되었나?
⑤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2. 적용
① 적용이 성경본문의 해석에 근거해 있는가?
② 회중들의 삶에 적절한 적용인가?
③ 구체적, 개인적, 실천적인 적용이 제시되었는가?
④ 회중들로부터 흥미와 관심을 끌었는가?
⑤ 성경본문의 설명을 위해 적절한 자료를 사용했는가?

III. 설교의 전달
1. 내용의 이해
①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② 내용의 흐름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가?
2. 언어 사용법과 목소리
① 대화하듯 친밀하게 말하고 있는가?
② 간결한 언어와 발음을 명확하게 사용하는가?
③ 사투리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④ 강약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가?

3. 자세

① 눈을 회중과 친밀하게 마주치고 있는가?

② 설교의 자세가 자연스러운가?

③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가?

④ 옷차림이 단정한가?

IV. 설교의 효과

① 회중의 관심을 끌었는가?

② 회중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는가?

③ 설교자가 하나 된 느낌을 주었는가?

④ 변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 받았는가?